

KERI Brief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융복합단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kabsung@yonsei.ac.kr)

본고는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의 삼성관계사를 중심으로 조성된 천안·아산탕정 융복합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생산시설 및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복지시설 등이 조성되고 있는 천안·아산 융복합산업단지는 현재 매년 약 30조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 천안·아산탕정 지역의 삼성관계사 종사자 수는 3만 5,000여 명으로 2004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삼성관계사의 연간 투자 증대로 인해 나타난 2012년 천안·아산 융복합산업단지의 고용유발효과는 8만 7,059명으로 추정되고,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43.1조 원과 12.3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천안시와 아산시는 충청남도 내 도시 중 각각 재정자립도 1위, 2위를 기록하면서 지역재

정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구증가율과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율 역시 전국 평균과 충청남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화율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지역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아산탕정 융복합산업단지에 나타난 것과 같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사업성과와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에 착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는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해 주민을 설득하고 교육·의료·복지·교통 등 시설투자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출신 직원의 고용 확대를 비롯하여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문제제기

□ 본고는 융복합산업단지 내 삼성 등 대기업의 성장이 지역사회에 주거·교육·문화서비스 등과 융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기업의 생산시설과 관련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의료·교육·문화·주거·레저서비스 산업 등을 융합한 자족형 도시구축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2. 융복합산업단지란?

□ 융복합산업단지는 생산시설과 주거, 문화, 의료 및 복지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단지를 의미함

- 기존의 산업단지는 생산시설을 한곳에 모아 관련 산업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로 조성

- 우리나라의 공업화에도 산업단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대규모의 토지를 확보하여 싼 가격으로 기업에 제공하여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집적으로 인하여 물류비의 절감 및 숙련된 인력 확보 등의 이점이 있음

- 대부분의 제조업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입지는 주거단지와 격리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의 방향이었으나, 최근의 지식정보산업으로 대표되는 주력산업들은 환경오염 자체를 유발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저감(低減) 또는 방지 기술도 함께 발달하고 있어 오히려 주거와 함께 개

발되는 것이 추세임

□ 고급인력일수록 문화와 의료,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커져서 지식정보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융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것이 확대된 형태가 자족형 도시임

- 자율성과 창의성이 풍부한 기업의 생산시설과 관련 기반시설이 중심을 이루고, 주거와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레저 등의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인 자족형 도시가 형성

- 스웨덴의 시스타시, 핀란드의 울루 등은 대표적인 융복합도시의 전형임

○ 시스타시는 일자리와 주거, 소도심의 조화를 통해 살기 좋은 자족형 기업도시의 전형으로 회자되고 있음

○ 즉, 기업과 산업시설의 일 자리를 중심으로 주거 기능이 함께 입지하고 있으며, 교육, 문화, 의료 등 도시의 생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우리가 추구하는 융복합도시의 모습이 탄생함

○ 대학과 기업의 산·학·연 연계 체계를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역량을 배가하면서 주거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자족형 도시를 지향

□ 융복합산업단지의 장점으로는,

- 일자리와 주거시설이 한 지역에 복합적으로 조성되면 직장과 집의 거리가 가까워져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도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감소시킴

-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레저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생활여건이 좋아지면 종사자의 지역 정착률이 높아짐

- 이는 다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킴
- 좋은 생활여건은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임
- 우리나라 지방 대부분의 공업도시에서 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이유도 산업단지 자체보다는 교육, 문화, 의료, 복지와 같은 생활기반시설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
- 이는 지방의 생산이 소비로 직결되지 못하고 역외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천안·아산탕정 융복합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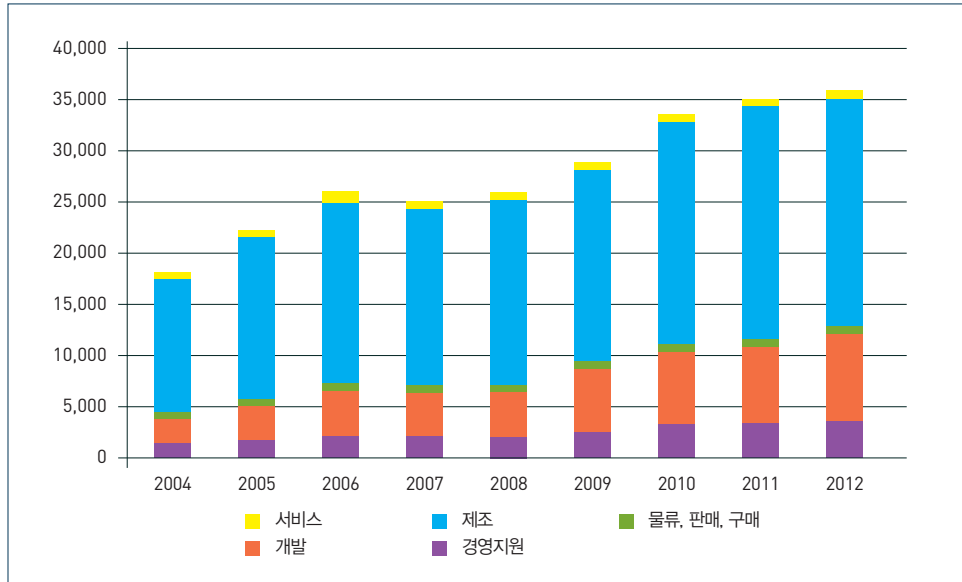
- 천안·아산 융복합산업단지는 삼성디스플레이 주도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와 응두리 일대 약 138만 평의 부지에 조성된 산업단지임
- 1995년부터 1차로 74만 1,000평, 2004년부터 2차로 64만 1,000평의 부지가 개발
- 1차 개발 사업은 주로 생산 및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
- 2차 개발 사업은 산업용지 외에도 주거 및 지원, 교육시설 등 복합 개발
- 현재 천안·아산 복합산업단지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SDI, 삼성전자 등 4개의 삼성 관계사가 입주해 있음

- 아산탕정산업단지의 조성에는 1단계 1995년부터 2003년까지 1조 200억 원, 2단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조 211억 원이 투입되어 총 2조 4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매년 약 30조에 달하는 매출 성과를 보이고 있음

4. 천안·아산탕정 융복합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

- 천안·아산탕정 지역의 삼성 관계사 4개사의 총 종사자 수는 2004년 18,013명에서 2012년 35,68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함
- 이는 직접 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2004년 8,565명에서 2012년 23,729명으로 2.8배가량 증가하였고, 삼성코닝정밀소재는 1,567명에서 3,59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삼성SDI는 4,309명에서 4,301명으로 유사하고, 삼성전자는 3,572명에서 4,060명으로 소폭 증가함
- 삼성 관계사의 직접고용을 직종별로 분석해보면 모든 직종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특히 개발직군의 증가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일자리가 고급화되고 있음
- 2004년 1만 3,137명이던 제조 인력은 2012년 2만 2,020명으로 1.7배 증가한 반면, 2004년에 2,464명이던 개발 인력은 2012년 현재 8,670명으로 늘어나 3.5배의 증가율을 보임
- 이로 인해 직접 고용 중 개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13.7%에서 24.3%로 높아졌음

[그림 1] 삼성 4사의 직군별 종사자 수 추이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1차 협력사의 전체 고용 인력도 2004년 5,412명에서 2012년 4만 명으로 늘어나 7.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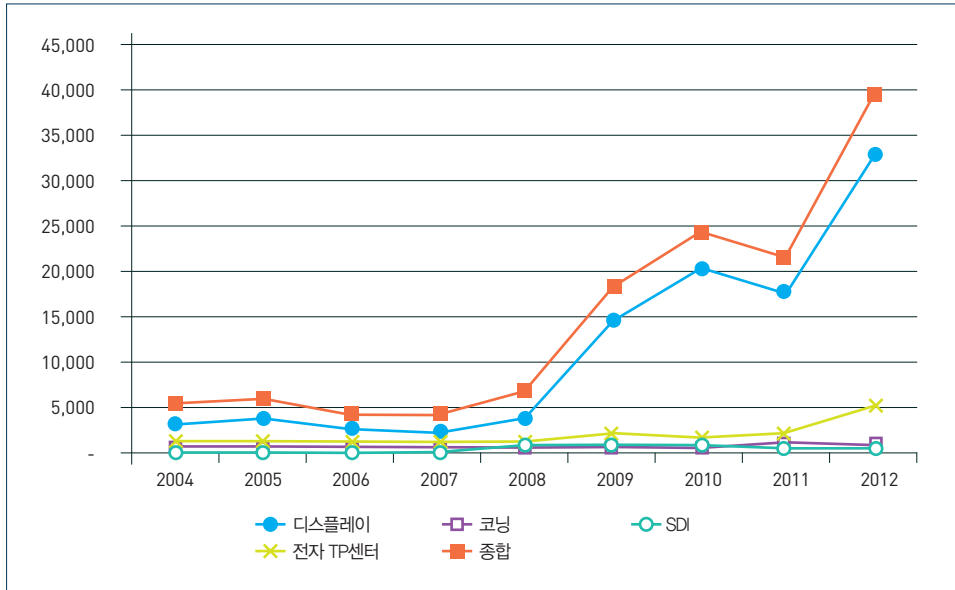
- 이는 규모나 증가율 면에서 삼성관계사의 직접 고용 수준을 앞서는 결과로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의 1차 협력사는 각각 10.3배와 5.3배의 높은 고용 증가율을 기록함
- 이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제공한 천안·아산 소재 삼성 4사와 협력업체들 간의 2004~2012년 거래액과 NICE 신용평가정보에서 KISVALUE를 바탕으로 협력사 총 매출액을 구하여, 삼성 4사가 협력사들에게 기여하는 간접 고용 기여도를 측정할 결과임
- 약 1,600개의 협력사에 대한 삼성 관계사 4개의 거

래액과 각 기업의 매출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고용 기여도를 측정하였음

□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삼성 관계사 4개사의 투자(연간 27조 원~34조 원) 증대로 인한 지역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의 천안·아산 융복합산업단지의 고용유발효과는 8만 7,059명으로 추정됨

- 이 결과는 천안·아산지역의 전체 고용인력(약 35만 명)의 1/4에 해당하는 수치임
- 지역산업연관표는 산업 간의 연관효과를 분석하여 특정 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으로 투자에 대

[그림 2] 협력업체 고용자 수 및 삼성 4사의 1차 협력사 기여도 추이



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의 추정에 널리 사용

□ 실제 천안·아산지역은 실업률도 크게 낮아짐

- 2008년과 2012년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천안의 실업률은 3.0%에서 2.1%로 0.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실업률이 0.1%p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천안·아산 복합산업단지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고민거리로 떠오른 실업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함

- 특히, 젊은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융복합산업단지 또는 융복합도시와 같이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레저 등이 한 도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족형 도시의 조성이 필요

5. 천안·아산 융복합단지의 지역경제파급효과

□ 도시성장과 쇠퇴에는 기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

- 일본의 가메야마 시는 한때 '사프 시'로 명성을 떨쳤음

- 2004년 전자업체 샤프의 대형 LCD 라인과 TV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도시로 급부상
- 한편, 지난해 약 5조 원의 적자를 기록한 샤프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가메야마 시 전체가 깊은 침체에 빠짐

□ 도시의 운명이 산업의 흥망성쇠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기업이 생산과 고용,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임

- 조선산업의 도시였던 영국의 글래스고, 자동차 도시였던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대표적인 사례임
- 뮤지컬 <폴몬티>는 지금도 쇠퇴한 철강도시 셰필드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음

□ 복합산업단지 조성 이후 천안·아산은 충청남도 경제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함

- 2012년도의 삼성 관계사 4개사의 투자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를 추정한 결과 43조 1,000억 원에 달함
- 이는 충청남도의 총 생산액의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년 42%에서 크게 증가한 것임
- 특히, 아산의 총생산 비중이 같은 기간 18%에서 28%로 급증
-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2년 12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됨
- 생산유발효과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총 68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은 성과로 인해 지역재정이 크게 개선

- 1999년과 2011년 세수를 비교한 결과 천안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999년 1,653억 원에서 2011년 6,286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함

- 아산시의 지방세는 1999년 646억 원에서 2011년 4,106억 원으로 약 6.4배 증가함

- 같은 기간 동안 천안시와 아산시의 법인세 합산액은 약 11배 늘어나 3,809억 원에 달했으며, 소득세 합산액 또한 1,052억 원에서 5,247억 원으로 약 5배 증가

- 특히 아산 지역의 삼성 관계사가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시점의 세수 증가폭이 두드러짐

- 합산 소득세는 2004년에 38% 늘어났으며, 지방세와 법인세는 2003년에 각각 35%와 32%가 증가

□ 이와 같은 세수 증대를 통해 천안시와 아산시는 충청남도 내 도시 중 재정자립도 1,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아산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35%에서 2012년 46.5%로 급상승했으며, 이는 충청남도 도시의 전체 평균인 32%는 물론 대표적인 지방 공업도시인 구미^(44%)나 거제^(42%)보다도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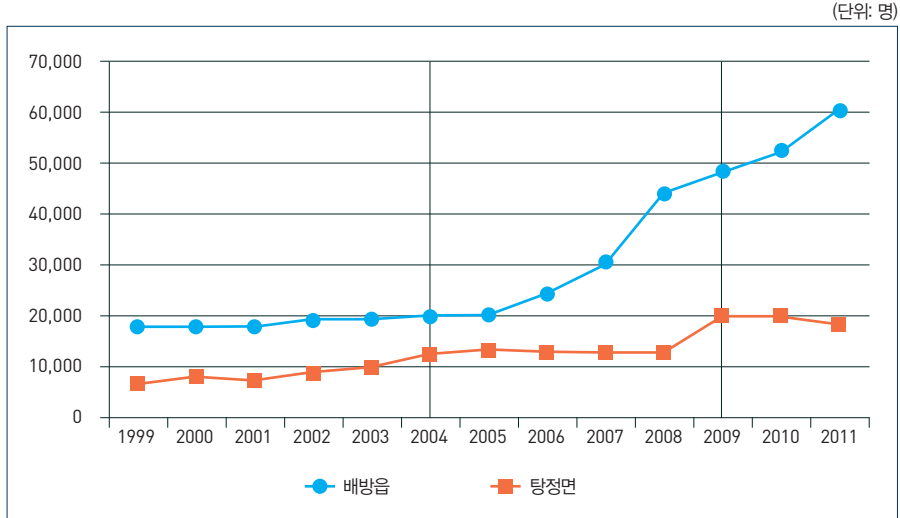
□ 인구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999년 40만 3,017명이던 천안시의 인구는 2011년 57만 1,377명으로 1.4배 증가

- 아산시의 인구는 18만 618명에서 27만 4,523명으로 1.5배 증가

- 복합산업단지 인근인 아산시 탕정면과 배방읍은 전국 평균(0.6%)과 충청남도(0.9%)를 훨씬 상회하는

[그림 3] 삼성LCD단지 주변읍면 인구변화 추이



자료: 주민등록인구 통계

8.8%와 12.8%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기록

- 2011년 현재, 천안시와 아산시의 20세 이상 40세 미만 인구비율은 각각 32.6%, 32.8%로 전국 평균 29.5%, 충청남도 평균 27.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 비율을 나타냄

○전국의 도시들이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인구의 구조 면에서도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

□도시화율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이루어짐

- 1999년 대비 2011년 도시화율은 천안시가 1.2배, 아산시가 1.4배 증가
- 아파트 비율도 2000년 대비 2010년에 천안시가 1.2배, 아산시가 1.5배 증가하여 주거의 고급화도 진

행되고 있음

- 아파트의 매매가격도 2000년 대비 2010년 천안시가 2.1배, 아산시가 2.3배 각각 증가하여 지역개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이외에도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도 이루어져 천안·아산복합산업단지의 조성은 지역개발에 양적,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6. 융복합산업단지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언

- 융복합산업단지 조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됨

□ 기업은 기업의 사업성과와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에 착근시켜야 함

- 이를 위해 지역 내 협력업체(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향상을 위한 지도와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단기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지역 대학과의 계약학과 석박사과정 등), 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정보 교류 등 경영노하우 전수, 협력업체를 위한 입지 공간 제공(복합산업단지 내 저렴한 입지 공급) 등에 노력해야 함

□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 필요

- 중앙정부는 입지 규제를 완화하여야 함
 - 일반산업단지 지정 시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제공하여 의료, 문화시설과 같은 초기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들의 입지가 용이하도록 제도 변경
-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재설계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세제 혜택(취등록세, 법인세 등)의 차등 적용을 부여
- 복합산업단지 개념의 복합용도 산업단지 지정을 확대
-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해 주민을 설득하고 기초시설 투자 지원
 - 기업 대표와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상생방안 등 이슈를 발굴하고 협의
 -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시설 투자(교통, 교육, 의료, 복지 등)에 지원
 - 이를 위해 기업 입지 초기 지방세 수입분의 해당 기업

지원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는 협약을 체결

- 기업체 임직원과 공무원의 교환 근로제를 통해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

□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출신 직원의 고용 확대
- 지역포럼의 개최(예, 삼성경제연구소의 지역포럼)
- 기업의 시설(홍보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지역주민에 개방
- 지역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협력(자원봉사대, 초중고생 장학금 지원, 환경보호 캠페인 등)
- 구내 식당의 지역생산 식자재의 우선 구입
- 지역의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기업 투어 프로그램 제공
- 지역주민 대상 기업 투어 프로그램(환경시설 등) 제공
- 구내 의무시설 확충 및 시설의 지역주민 개방
- 지역민 초청 행사 개최(공연, 음악회, 체육대회, 마라톤대회 등)
- 명절 때 구내에 지역특산물 판매장 개설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 사업 전개

□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융복합산업단지의 긍정적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음

□ 기업이 망하면 도시도 망한다는 외국의 교훈을 되새기며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융복합산업단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함